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버 구원투수될까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버점 26일 오픈
아울렛과 전문몰 결합 신개념 쇼핑몰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에 상권 활성화



‘상생형 쇼핑몰이 온다.’

현대백화점의 ‘상생형 쇼핑몰’ 현대시
티몰 가든파이버점이 배일을 뱃었다.

유통 이 회사는 2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
재 가든파이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가든파
이브 라이프동에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버점을 오픈한다”
며 “라이프동 리빙관(지하 1층~지상 4층)과 테크노관
(지하 1층~지상 5층)에 영업면적 4만8863㎡(약 1만
4781평) 규모로 들어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개점 후 침체를 면치 못했던 가든파
이브가 현대백화점의 입점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이에 회사 측은 아울렛과 전문몰의 강점을 결
합한 제품구성 경쟁력과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서
비스를 통해 침체된 가든파이버 상권을 활성화하고, 오픈
1년간 매출 2200억원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렛+전문몰=신개념 쇼핑몰

우선 ‘아울렛관’과 ‘몰관’으로 구성해 기존 아울렛에
전문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을 추구했다. 아
울렛의 이월상품과 트렌디한 상품을 동시에 쇼핑할 수
있는 게 장점. 특히 ‘몰관’에는 현대리바트와 판매 계약
을 맺은 미국 홈플러스인 기업 ‘윌리엄스 소노마’사의 ‘포
터리반’·‘포터리반키즈’·‘웨스트엘름’ 등의 국내 첫 매
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색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할 체험형 매장은 텀
이다. ‘아울렛관’에 들어서는 36개월 미만 아이를 대상
으로 한 ‘키즈 전용 문화센터(H-키즈 스튜디오)’와 무
료로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라운지’가 그
예다.



현대백화점의 ‘상생형 쇼핑몰’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버점이 26일 가든파이버 라이프동에 오픈한다. ‘아울렛관’과 ‘몰관’으로 구
성, 기존 아울렛에 전문몰이 결합된 신개념 쇼핑몰을 추구했다. 또 매출이 늘수록 중소 상인에게 제공되는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상생협력모델’도 눈에 띈다. 사진은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버점 외부 전경.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

●‘상생형 쇼핑몰’의 출현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하는 사례에도 눈
길이 간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상생협력모델’이 적용된 것. 이는 기존 영업 중인 중소
상인 약 250명과 SH공사로부터 매장을 임차해 운영하
며 매출액의 일정부분(수수료)을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
하는 방식에서 파생됐다.

약 4%대인 임차료가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오르도
록 설계돼 있어 임점이 활성화될수록 중소상인에게 더
큰 이익이 주어지는 윈윈구조다.

더불어 문정동 로데오 상인들과의 상생도 고려했다.
쇼핑몰 명칭에 아울렛을 뺀 ‘현대시티몰’로 바꾼 것도
그 이유. 건물 외벽과 내부에 있는 LCD전광판에 문정
동 로데오거리 홍보용 이미지를 띄워놓는 등 공동 판촉

행사로 추진한다는 게 회사 측 소개다.

또한 최근 송파구청과 채용박람회 열고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빅이슈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모습이다.

박동은 현대백화점 사장은 “현대시티몰 가든파
이브점은 중소상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라며 “아울렛과 전문몰의 강점을 결합한 MD경
쟁력과 현대백화점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침체
된 가든파이버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견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공감하고 있다. 향후 신규 출점 시에도 주변 상인들과
의 상생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날씨와 생활 26일 (금요일)				춘천 0/0	
서울 0/0	12 24	인천 0/0	13 24	10 23	
대전 0/0	11 23	청주 0/0	12 23	강릉 60/20	13 19
광주 0/0	13 24	전주 0/0	11 23	울산 0/0	13 24
제주 0/0	14 22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대구 0/0	13 25
날씨	최저 최고기온	범례		창원 0/0	13 26
☀ 해돋이 05:15 / 해질 19:43				부산 0/0	14 24
🌙 달출 05:44 / 달질 20:07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 12/25	인천송도	☀ 13/22	서울	38 보통
설악산	☁ 14/19	제주도	☀ 12/23	부산	58 보통
오대산	☀ 7/20	경포대	☁ 13/19	대구	49 보통
계룡산	☀ 10/24	속초	☁ 13/19	인천	42 보통
속리산	☀ 8/23	대전	☀ 12/21	광주	38 보통
소백산	☀ 9/21	안면도 꽃지	☀ 13/22	대전	44 좋음
팔공산	☀ 13/25	변산반도	☀ 13/22	울산	59 보통
지리산	☀ 11/24	거문도	☀ 14/24	경기	45 보통
덕유산	☀ 8/23	철포	☀ 15/22	강원	38 좋음
내장산	11/22	해운대	☀ 14/24	충북	42 좋음
한라산	11/18	제주도	☀ 15/21	강남	42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27일 (토) 서울경기	15/27	☀	14/24	☀	14/27
28일 (일) 서울경기	17/29	☀	18/30	☀	18/26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6일(금요일) 음력:5월 1일

	쥐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현재는 어렵지만 궁둥통이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가무를 피하라.	길방:중
	소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분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가 중요하다.	길방:서
	호랑이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운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발전을 할 때이다. 준비가 완료된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라.	길방:북
	토끼	오늘의 마음:여름, 일출 직전. 운세: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금전의 융통이나 어려움의 해결은 용띠에게 부탁하라.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길방:북
	용	오늘의 마음: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매사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저축에 힘써라. 느긋한 기다림이 필요할 때다.	길방:서
	뱀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무상. 운세: 매사 무리하지 않고 쉬운 길을 골라 가는 게 좋고,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자신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라. 외로워지는 날이다.	길방:중앙
	말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하더라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겸손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라.	길방:동
	양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 운세: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날이다.	길방:서
	원숭이	오늘의 마음:씨름, 소심한 날. 운세: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시기 이다.	길방:중앙
	닭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때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먼 곳과의 거래 성사가 있는 날이다.	길방:중앙
	개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이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취침 시 베개를 서남쪽으로 향하라.	길방:서
	돼지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을 것이다. 지나치게 설치다보면 실수를 한다.	길방:동
	재운코너	*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3, 7, 8, (4, 6) *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토요일: 토끼, 양, 돼지) *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토끼, 양, 돼지(토요일: 쥐, 용, 원숭이)	



맥심커피매 시상식

바둑 9단들에게만 출전자격이 주어져 ‘임신들의 제전’으로 불리는 제18기 맥심커피매 임신최강전 시상식이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우승자 박정환 9단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상금 5000만원이 주어졌다.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 이사, 우승자 박정환 9단, 준우승자 윤준상 9단,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 (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기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합헌’

휴대전화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9명이 단통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항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
10월 자동일몰…조기 폐지 움직임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역시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단통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경우 일몰규제로, 오는 10월 자동 폐지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국회에도 관련 개정안이 입법 제출돼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1	9		2		
	9				5	7 1
	7		6	1		
1		4		8	6	3
			3		5	
5		7		2		4 9
			5		7	3
7	5	1				2
			2	8		6

	7			1	9		6
		5	2			3	
	6				5		4
4				2			6
7		1	6		3		2
	2			7		9	3
	4		3				1
8		9			4	2	
			5	9			3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9	9	8	1	2	6	7	8
8	2	6	8	9	7	1	9
7	8	1	2	6	9	8	9
1	2	9	7	8	6	3	4
6	9	9	6	8	1	7	9
2	6	8	1	9	9	8	7
1	2	9	7	8	9	6	2
9	7	8	2	1	6	9	1
7	8	9	1	2	6	9	1
9	2	9	6	1	8	7	4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인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부	02 2020 1032	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편집인	이성준	스포츠초1부	02 2020 1041	스포츠초2부	02 2020 1059	2008년 3월 3일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초2부	02 2020 1059	스포츠초2부	02 2020 106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편집국장	이승욱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2008년 3월 24일 창간
인쇄	동아일보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